

2026 RC 공통 프로그램

《혐오의 시대, 시민은 어떻게 공동체를 지키는가?》 독서와 프레젠테이션 대회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커질수록 타인을 대화할 이웃보다 경계할 위협으로 여기기 쉬워지고, 그 감정이 분노와 결합하면 조롱, 낙인과 배제가 정당한 판단처럼 포장되어 개인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혐오가 사회로 퍼지면 사람들은 서로를 함께 살아갈 시민이 아니라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고, 공론의 공간과 민주주의의 기반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번 독서와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돌아보며, 개인의 감정과 태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서로를 시민으로 존중하기 위한 자세와 기준을 각자의 논지로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 주제: '혐오의 시대, 시민은 어떻게 공동체를 지키는가?'
- ◆ 대회방식: 선정도서들 중 1 권 이상에 대한 독후감 제출 및 이후 관련 프레젠테이션 진행
- ◆ 참가자격: 본교 RC 대상 학생
- ◆ 참가형태: 개인 또는 팀 (최대 3 인)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문의: RC교육원

032-749-3222

yicrc@yonsei.ac.kr

시상 및 부상

최우수 1팀 또는 개인 - 30만원
우수 2팀 또는 개인 - 각 20만원
장려 5팀 또는 개인 - 각 15만원

도서 소개 (RC 추천도서 중에서 선정함. 선정도서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서명 추천도서 목록 번호순)

<p>11 타인에 대한 연민</p> <p>마사 누스바움 지음</p>	<p>이 책의 저자인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현재를 정치적 위기의 시대로 파악한다. 그녀는 악화되는 정치적 상황을 불러온 단초로 인간의 원초적 '두려움'을 지목하며, 두려움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혐오와 분노로 증폭되는 과정과 이를 자극하고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저자는 두려움과 혐오에 맞서는 희망과 대안으로서 시민의 직접 행동, 사회정치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 교육을 통한 비판적 사고, 사랑과 존중의 실천을 제시한다.</p>
<p>24 사람, 장소, 환대</p> <p>김현경 지음</p>	<p>이 책은 사회의 구성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 부르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과학, 철학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서술한 책이다. 이 책에 의하면 사람은 자연개념인 인간과는 달리 도덕적 공동체에서 자리를 부여받는 존재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는 의미이고, 환대란 사회가 자리를 내어 주는 행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러한 대접을 통해 사람이 된다. 책의 키워드인 사람, 장소, 환대는 일상어에서 가져왔지만 여기 담긴 사고는 근본적이고 과감하며 성찰적이다.</p>
<p>25 헌법의 풍경</p> <p>김두식 지음</p>	<p>검찰 출신의 법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힌다. 저자는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 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한다.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이 책은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독자에게 헌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중요한 작품이다.</p>
<p>32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p> <p>김민철 지음</p>	<p>정치사상과 지성사 분야의 탁월한 학자인 저자는 민주정의 정신, 즉 보통 사람의 통치에 대한 기피와 혐오가 생각보다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통치와 정치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인 뒤 그 위에서 사회를 건설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앞서서 민주주의가 현재진행형의 역사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이는 대표 선출, 대표자의 수, 통치권의 제한 방식 등 정치사적 쟁점들이 지금도 여전히 쟁점으로 살아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p>

47 생명을 묻다

정우현 지음

암생물학과 분자유전학을 전공한 저자는 이 책에서 생명에 관한 15개의 커다란 질문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과학과 철학, 신화와 문학을 아우르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다. 과학은 생명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 위주의 생명 이해와 생명 조작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저자는 생명은 개체인 동시에 그물망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한다. 생명의 본질은 '관계'이며 그것의 윤리는 '연대'의 윤리여야 한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세부일정

- ◆ 대 회 공 지 : 2026. 3. 23.(월)~
- ◆ 중간보고서 제출 마감 : 2026. 4. 6.(월)~5. 1.(금) 오전 9시. 아래 링크로 제출
*제출 순차적으로 피드백 제공하며, 미제출시 최종본 작성 불가
제출 링크: <https://forms.gle/EXnNtzXGY532w61h7>
- ◆ 최종본(독후감) 제출 마감 : 2026. 5. 11.(월) 오전 9시. 제출 링크는 추후 공지
제출 양식은 아래 설명 참조, 독후감 기한 내 제출시 RC 자기주도활동 4시간 인정
- ◆ 본 선 진 출 팀 발 표 : 2026. 5. 15.(금) 개별 연락
본선진출팀 동영상 발표자료 제출: 5월 중, 개별 공지
- ◆ 결 선 대 회 : 2026. 5. 27(수) 19:00~20:30 국제캠퍼스 자유관A 102호
- ◆ 결선대회 청중평가단 모집 : 2026. 5. 19.(화)~5. 26.(월) 오전 9시 선착순 120명 선정RC 자기주도활동 1시간 인정

※ 이번 학기 타 RC 독서 프로그램(AX 북클럽)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본 대회에 동일 도서로 참여 불가하며, 추천도서 중 다른 책을 선택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양식

◆ 제출자료 : 중간보고서 / 최종본(독후감)

중간보고서	내용	도서 및 주제 선정 이유 실제 도서 내용 2군데 이상 인용 필수(페이지 쪽수 기입)
	분량	1,600~1,800자 (A4 한쪽 분량)
	내용	1권 이상의 도서에 대해 주제를 연결하여 작성

최종본(독후감)	분량	3,000~5,000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 포맷 : DOCX ➢ 지정서식 : 맑은고딕 혹은 나눔고딕 11pt, 줄 간격 1.15배 ➢ 삽입된 이미지 등은 직접 제작한 자료가 아닌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함. ➢ 본심 동영상 발표 자료 : 해당자 또는 팀에게 개별 상세 통지 ➢ Chat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였을 경우 모든 프롬프트를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함. 		

평가기준

【예선】 독후감 심사	주제 연계성 및 논거의 타당성과 설득력	40%	심사위원단 심사
	논지의 창의성 및 독창성	20%	
	책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20%	
	원고 및 자료의 충실성 및 완성도	20%	
【본선】 동영상 심사	발표 자료의 구성	40%	
	발표자료의 완성도	30%	
	발표자의 논지 전달 능력과 태도	30%	
【결선】 대면발표 심사	발표자료의 구성 및 완성도	30%	❖ 결선평가 ◆ 심사위원단(90) + 청중평가단(10) 점수 합산 평가 ◆ 동점일 경우, 팀 우선 수상
	논지 전달능력과 태도	30%	
	질문에 대한 답변의 설득력	20%	
	팀구성원들의 협업 능력	20%	